

미래사, 본고사문제 출판권

대학입시 본고사 부활과 함께 각 대학의 본고사 문제와 모의실험평가문제, 해설 등에 대해 대학과 출판사간에 출판권 계약이 체결됐다.

이같은 출판권 계약은 미래사(대표 김준목)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4개 대학간에 체결된 것으로,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위 대학들이 출제된 본고사 기출문제를 참고서나 문제집 등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미래사와 대학측은 93년까지 판매된 책자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지만 94년 1월 1일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도서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학입시문제에 대해서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문제집, 참고서 등에 전제하여 사용해 왔던 출판사들로서는 기존의 관행에 없던 새로운 부담을 안게됐다.

한국출판금고 새 임원진 선출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구랍 21일 정기이사회에서 제5대 임원진을 새로 선출했다. 1995년 12월까지 2년간 재임하게 되는 새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 정진숙(을유문화사 대표)

▲이사 : 이용호(문화체육부 어문출판국장) 김낙준(출판협회 회장) 전영동(문예진흥원 사무총장) 양철우(교학사) 노양환(우신사) 이승하(성광문화사) 허창성(평화출판사) 전병석(문예출판사) 김현식(동아출판사) 최학수(상업이사)

▲감사 : 임홍조(영재교육사) 김준식(대광문화사)

외국간행물 수입 등록제로

문화체육부는 구랍 30일 "외국정기간행물 수입허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법개정에 따라,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누구든지 외국간행물을 수입,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국잡지의 수입추천때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월 5일 협회 강당에서 신년교례식을 가졌다.

출판협회 회원들 새해 첫인사

2백여 출판인 참석, 책의해 성과 서로 나눠

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월 5일 협회 4층 강당에서 회원사 대표 및 관계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94년 '신년교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낙준 출협회장(금성출판사 대표), 정진숙 출판금고 이사장(을유문화사 대표), 김경희 출판연구소 이사장(지식산업사 대표) 등 200여 출판인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김낙준 출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책의해 성과는 아주 성

공적이었으며 이를 성원한 회원들과 협회 임직원들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95년 출판유통시장 개방, 97년 출판시장 개방 등 개방화시대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회원사 모두가 번창"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이 자리에는 강인섭 국회의원과 인쇄협회 박충일 회장, 잡지협회 김수달 회장 등이 참석, 시종 화애로운 분위기속에서 출판인들과 신년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인정할 때만 수입한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배포전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언론연구원 잡지실태 조사

한국언론연구원 발간, 「한국의 월간잡지」에서는 지난해 발행된 월간 유가지 가운데 2백45개를 뽑아 제작 환경·운영실태·지면내용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월간잡지의 발행기간은 평균 7년2개월, 부수는 2만부 정도, 가격은 3천9백원 선, 한번 발행하는 면수는 204면으로 나타났다.

책의해 성과보고대회 열려

책의해를 마감하는 '93 책의해 성과보고대회'가 구랍 21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책의해 조직위원회 김낙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책의해를 힘껏 밀어준 언론매체와 출판인들 그리고 출판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며 한해동안 조직위원회가 책의해를 위해 실행했던 모든 행사들을 소개했다.

출판인들에게 관계된 행사로는 양서지원을 위한 퇴폐출판물 없애기, 작은 책 광고하기, 독서실태조사, 책의 문화 총서 간행, 전자출판물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등이다. 지난해 사업성과를 담은 단행본을 1월 말에 출간 예정에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책의해를 위해 힘써준 각계 단체 및 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예화대백과사전」 출간

기독교문사는 한국 교회에서 사용된 예화를 비롯하여 새로운 자료를 동원한 16권 짜리 「예화대백과사전」을 2년 만에 출간했다.

제1권은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한 '성경예화', 제2권에서 제5권은 전국 교회에 예화공모를 실시하여 모집한 '한국교회예화', 제6권에서 제9권은 '외국교회예화', 제10권에서 제11권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위인들의 명언을 수록한 '동양의 지혜', 제12권에서 제13권은 '서양의 지혜', 제14권에서 제15권은 동양 고전작품 등을 수록.

추천도서

서울지역출판노조(위원장 박강호)와 여성편집자모임(회장 이덕희)은 각각 93년을 마감하면서 '올해의 좋은 책' '여성편집자 16인이 추천하는 좋은 책' 목록을 발표했다.

'올해의 좋은 책'은 서울지역출판노조가 93년도에 매달 실시했던 '이달의 좋은 책'을 종합하여 아동, 역사, 문학, 경제, 과학, 철학, 환경 등의 분야별 도서를 선정한 것이다. '여성편집자...'는 91년 10월부터 93년 10월 사이에 국내에서 발간된 책을 국내소설, 번역소설, 비소설, 인문사회, 만화 등의 분야로 나누어 선정됐다. 다음은 선정된 도서 목록이다.

올해의 좋은 책

- 세계 교과서에 실린 명작동화(편집부/일과놀이)
- 하늘 끝 마을(조성자/대원사)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유홍준/창작과비평사)
- 바로잡아야 할 우리 역사 37장면(역사문제연구소 편/역사비평사)
- 친일파 99인(반민족 문제연구소 엮음/돌베개)
- 그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이인휘/일터와사람)
- 사람의 등불(고재중/실천문학사)
- 쓰러진 자의 꿈(신경림/창작과비평사)
-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공선옥/삼신각)
- 풋사랑(김영현/실천문학사)
-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수잔 포워드 지음, 이지수 옮김/심지)
- 삶의 여성학(박혜란/또하나의문화)
- 경제기사소프트(곽혜선/사계절)
- 리엔지니어링 기업혁명(마이클 해머 외 지음, 안중호 외 옮김/김영사)
- 겨우 존재하는 것들(김제완/민음사)
-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과학이야기(로버트 M 헤인즈 지음, 이창희 옮김/고려원미디어)
-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로버트 템플 지음, 과학세대 옮김/까치)
- 반갑다 논리아(위기철/사계절)

이야기 속의 논리학(김득순/새날)

시민을 위한 환경교실(환경운동연합/푸른산)

여성편집자 16인 추천 좋은 책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박완서/웅진)
- 숨은 꽃(양귀자/문학사상사)
- 영원한 제국(이인화/세계사)
- 俞子小傳(이문구/벽호)
- 풍금이 있던 자리(신경숙/문학과지성사)
- 개미(베르나르 베르베르/열린책들)
- 걸리버 여행기(조나단 스위프트/문학수첩)
- 소설(제임스 미치너/열린책들)
- 앵무새 죽이기(하퍼 리/한겨레)
- 제츠(토니 모리슨/문학세계사)
- 겨우 존재하는 것들(김제완/민음사)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유홍준/창작과비평사)
- 새로쓰는 성이야기(또하나의문화)
- 연애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태혜숙/여성사)
- 행복한 책읽기(김현/문학과지성사)
- W이론을 만들자(이면우/지식산업사)
- 일곱 가지 여성 콤플렉스(여성을 위한 모임/현암사)
-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피터 드러커/한국경제신문사)
- 친일파 99인(반민족문제연구소/돌베개)
- 한 권으로 보는 세계사 100장면(박은봉/갈람기획)
- 과학생활 만화학습(조경철 외/예림당)
- 따개비(오원석/민서)
- 먼나라 이웃나라(이원복/고려원)
- 하나뿐인 지구(신영식/푸른산)
- 학습만화 삼국지(나관중/지경사)
- 백두산 이야기(류재수/통나무)
- 울망줄망 그림책(아동교육연구실/삼성)
- 올챙이 그림책(보리기획/웅진)
- 첫발걸 시리즈(갈리마르출판사/꼬마샘터사)